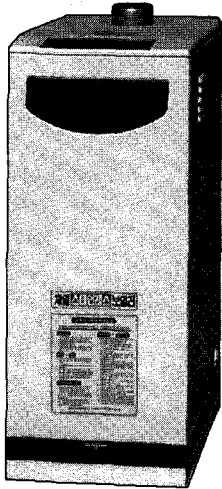




보일러를 손질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정성을 저하시켜 인명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보일러의 누수 확인, 연소통 교체, 온도조절장치 점검, 버너 등의 청소는 필수적이며 가동하지 않더라도 물은 채워두는 것이 부식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 봄철, 가정용 보일러 손질요령

관리방법에 따라 수명과 기능에 영향

겨울철에 계속 사용해 왔던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손질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는 가정이 대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보일러의 수명단축은 물론 자칫 보일러 이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따를 수 있다.

보일러의 깨끗한 손질은 재사용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수명과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

### <연탄보일러>

연탄보일러는 반드시 1년에 한번 쯤 점검해야 한다. 먼저 보일러 본체에 누수가 되는 곳이 있는지, 뚜껑이 견고한지 살핀다. 심하게 부식되었거나 본체와의 접합상태가 좋지 않은 뚜껑, 금이 가고 깨진 보일러, 연소통 등을 교체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보일러 전면 철판이 부식되어 있는 경우 쇠솔을 이용 깨끗이 청소하고 방청유를 발라준다.

다음으로 배관에 물이 충분치 못하면 성분이 저

하되므로 팽창탱크에 물이 정상적으로 차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화덕 부분은 이를 잠시 들어낸 후 보일러 가열면에 붙어 있는 그을음을 제거한다. 이러한 청소만으로도 열효율을 최고 30%까지 높일 수 있다.

화덕에 금이 가거나 깨졌을 때는 '열'자 표시가 있는 두께 2~3cm의 새화덕으로 교체해준다.

연통부분은 가스덩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가스배출기의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가스 누출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 <기름보일러>

기름보일러도 1년에 한번씩 청소가 필요하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기름보일러의 이상은 크게 나뉘서 스위치를 올려도 전혀 가동되지 않을 경우와 연소가 잘 안되거나 냄새가 많이 나거나 소음이 크다거나 난방이 제대로 안된다거나 온수가 잘 안나오는 경우들이

다. 사용한지 8년쯤 되면 자동장치·기름장치·기름탱크·여과기·버너 등을 종합점검해야 한다.

기름보일러의 수명은 대략 8~10년이다.

기름보일러 중 소형인 사각보일러는 앞면의 맨홀을 열고 버너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내부손질을 하고 원통형은 상부의 배기 가스 연통과 버너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청소한다.

버너는 기름이나 이물질을 마른 걸레로 제거한 후 분해역순으로 조립하면 된다.

보일러 내부는 버너 연소때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 그을음이나 황분 덩어리가 가열면 등에 부착돼 1년에 최고 10%까지 열효율을 떨어뜨리므로 쇠솔로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자동온도조절장치는 습기에 약하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닐로 밀봉해 둔다. 또한 기름탱크 안과 밖의 온도차에 의한 결로현상으로 수분이 발생하면 탱크바닥의 부식은 물론 기름과 섞을 경우는 점화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배수마개를 열고 물과 이물질·침전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기름보일러를 청소할 때는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기름 공급밸브를 잠근 후 해야 하는데, 특히 온도 조절장치 등은 전기회로가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

### 〈가스보일러〉

가스보일러의 청소는 가스공급관의 밸브를 잠그고 전원을 차단한 후 안전상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청소하여야 한다.

열교환기는 급수, 난방, 배관의 밸브를 잠그고 열교환기를 떼어준 후 배관 내 스케일을 점검한다.

또한 열교환기를 거꾸로 세워서 물을 고압 분산시켜 핀부분을 깨끗이 청소하고 구부러진 핀이나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점검, 건조 후 조립한다.

버너청소의 경우 불량연소 발생시 부드러운 철

솔로 메인버너 및 파일럿 버너를 청소하고 결로 등으로 부식된 부분이 있으면 교체한다.

옥내에 설치된 가스배관은 비눗물을 사용하여 가스의 누설유무를 수시로 점검한다.

### 〈전기보일러〉

전기보일러는 축열조에 저장되는 열량은 전기요금으로 계산되므로 적은 열량으로 큰 난방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명한 기기운전을 해야 하며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미단열 상태라면 단열 장치를 서둘러 자연적인 열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 〈난방배관〉

보일러 못지 않게 보관손질을 필요로 하는 것이 난방배관이다.

배관이 방바닥에 깔린 온돌의 경우 배관이 상하면 방바닥을 뜯어내는 대공사를 하게 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불편을 겪게 된다.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을 때는 실내의 난방배관, 보일러 내부관의 물을 빼내지 말고 그대로 채워두는 것이 비워두는 것보다는 덜 부식된다.

일반가정에서 배관의 물을 빼내는 것은 겨울철에 여행이나 장기간 외출로 보일러 가동을 중지하여 얼어터지는 것을 방지할 때만 필요하다.

그러나 보일러 아랫부분에 부착된 수도꼭지나 밸브를 가끔 열어서 보일러와 배관 내부의 침전물이나 혼탁한 물은 새물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